

워렌 버핏이 국내 종목을 산다면?

주식투자자라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워렌 버핏, 그가 국내 종목에 투자한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 워렌 버핏은 꾸준히 이익을 내는 기업을 찾아내 복리수익률을 이용한 장기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

헤럴드경제와 헤럴드생생뉴스가 가치투자 포털 사이트 '아이투자'와 제휴해 서비스하는 <가치투자 클럽>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계 최고의 투자대가들의종목선발 기준에 맞는 국내 기업들을 목록을 매일 볼 수 있다.

워렌 버핏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고 주당순이익(EPS)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을 선호한다.

또한 순유동자산과 시가총액을 비교해 안전마진에 대한 점검도 빼 놓지 않는다.

가치투자클럽 서비스는 이러한 워렌 버핏의 종목선발 기준에 따라 국내 기업을 찾아준다.

가치투자클럽 서비스에서는 지난달 28일 현재 워렌 버핏의 종목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 국큐빅, 카스, 현대통신, 한국전선, 태양기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가치투자클럽 서비스는 기업의 수익가치, 자산가치, 무형가치 변화를 차트로 만든 V차트(Value Chart)를 제공한다.

V차트는 기업들이 금감원 전자공시 실적발표 당일에 바로 업데이트가 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적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도 V차트를 통해 기업의 실적 개선 추이를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치투자클럽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투자교육연구소의 김인중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이 모든 상장기업의 실적발표를 일일이 업데이트 하고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기업들 목록을 보고 V차트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꾸준히 지속하면,누구나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노하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헤럴드경제 사이트(www.heraldbiz.com)에서는 가치투자클럽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29일까지 가치투자클럽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된다.

응모한 회원중 41명을 추첨해 1명에게는 80만원 상당의 온라인 투자교육 베스트 컬렉션 CD와 교재를 제공하며, 38명에게는 등급에 따라 가치투자클럽 1개월 ~ 1년까지 무료 이용권을 지급한다.

생생뉴스팀(livenews@heraldm.com)